

# 생태관광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 및 국제협력방안<sup>†</sup>

- 한·중·일 생태관광 인증/지정제도를 중심으로 -

최희선 · 김현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본부

## Introduction of a System for a Sustainable Ecotouris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Focusing on the Korea-China-Japan Ecotourism Certification/Designation System -

Choi, Hee-Sun · Kim, Hyun-Ae

Division of Environment Assessment Research,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ablish ecotourism as an introduction to sustainabil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a plan to retain the original meaning of ecotourism, the introduction of a program to certify/designate ecotourism is being vitalized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Korea as well, an agenda to the introduction of an "Ecotourism Designation System," which aims to ensure the quality of ecotourism at a certain level, was submit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in June 2011, and the promotion for a demonstration program is planned this year to introduce the system. Japan has been carrying out the certification systems Good Eco-tour, which certifies the sustainability of ecotourism providers and accommodations since 2006, respectively, and has been securing the sustainability of ecotourism by enactment in 2008, as the world's first law to promote ecotourism. And the second general conference of the first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Tourism(GPST) was held in Korea in March 2012, particularly, there was an agreement that the promotion of Asia and the Pacific Area Network for sustainable tourism would center around Korea, and accordingly, it is expected that Korea's status as a core country for ecotourism in the Asia-Pacific Area will increase. While the demand for an approach to natural resources is rapidly increasing, we should be active in providing an institutional strategy such as a designation system to secure the sustainability of ecotourism and seeking a plan for cooperation and network vitalization in the Asia-Pacific Area where similar natural resources and cultures are shared.

*Key Words: GPST(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Tourism) ASTN(Asia-Pacific Sustainable Tourism Network), Sustainability of Ecotourism, Wise Use,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sup>†</sup>: 이 논문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으로 수행한 '생태관광인증적용기술개발' 연구(차세대 에코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작성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Hee-Sun Choi, Division of Environmental Assessment Research, Korea Environment Institute, Seoul 122-706, Korea, Tel.: +82-2-380-7611, E-mail: choihs@kei.re.kr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생태관광의 지속가능성과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생태관광의 본래적 의미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외의 여러 국가에서는 생태관광 인증/지정제도의 도입이 활성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6월 환경부에서 일정한 수준의 생태관광 상품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생태관광 지정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상정한 바 있으며, 제도도입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일본은 2006년부터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인증하는 굿에코투어인증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 생태관광 진흥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여 생태관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환경부)는 지속가능관광 국제파트너십의 일환으로 2011년 1월 개최된 제 1회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Tourism(GPST) 총회에 참석하여 운영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되었으며, 제 2차 총회를 2012년 3월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2차 총회에서는 특히 한국이 중심이 되어 지속가능관광 아·태지역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아태지역의 생태관광 중심국으로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지역의 환경, 문화, 역사자원의 공유와 인식을 기반으로 한 생태관광은 개별 국가차원에서의 노력은 물론 국가 간의 협조와 동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생태관광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정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유사한 자연자원과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아태지역의 협력과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지속가능관광 국제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관광 네트워크, 생태관광의 지속가능성, 현명한 이용, 자연자원관리*

### I. 서론

생태관광은 자원의 보전은 물론 지역경제와 커뮤니티 활성화, 이해당사자들의 교육을 함께 고려하는 개념으로 친환경관광, 녹색관광에 비해 훨씬 강력한 형태이다(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2009). 즉 생태관광은 보전 잠재성을 가진 자연·생태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보전, 교육, 최소한의 체험활동을 통해 자원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관광으로 정의할 수 있다(환경부, 2010).

최근 들어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수요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생태관광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자원의 보전과 함께 수요자에게 일정수준의 생태관광 상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 중의 하나로 국외의 여러 국가에서는 생태관광 인증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목적으로 「생태관광 지정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을 위해 2012년 11월 현재, 의원입법을 통한 관련법을 개정과 시범사업 추진이 검토되고 있다<sup>1)</sup>. 더불어 교통기반시설의 발전과 의식의 변화로 국외 여행이 활발해지면서(UNWTO, 2012), 이러한 제도들이 개별 국가차원에서는 물론 국가 간의 협조와 동조에 기반한 발전방안 모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GPST,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UNWTO, 2012)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생태관광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특히 생태관광의 품질을 관리하는 수단인

인증제도<sup>2)</sup>에 기반한 한·중·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한·중·일 인증제도의 발전방안과 협력방안 모색을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단계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 크게 국내·외 사례와 통계자료들을

연구의 과정	연구의 방법
국내 생태관광 동향 분석	· 연구방법: 국내 통계자료(문화통계포털) 분석, 문헌고찰 1) 내국인, 외국인의 생태관광 동향 2) 국내 관광객(내·외국인)의 생태관광 동향
▽	
국내·외 생태관광 인증제도 동향 분석	· 연구방법: 국내·외 사례 분석, 문헌고찰 1) 국외 인증제도 동향 2) 한·중·일 인증제도 동향
▽	
한·중·일 국제협력 방안	· 연구방법: 문헌고찰 1) 아태지역 지속가능관광 네트워크 추진방안 2) 한중일 국제협력방안: 생태관광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	
결론 및 제언	· 연구방법: 연구내용 종합 · 연구내용: 향후 과제 제시

그림 1. 단계별 연구방법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다. 국내·외 사례조사·분석의 경우 인증제도와 유사제도를 항목별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관련문헌을 비롯한 세미나, 포럼 등의 국제회의자료와 웹사이트 등을 활용하였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국의 경우 전문가 자문과 제공 자료를 통해 조사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전문가 자문과 함께 2012년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환경성, 관광청, 일본생태관광협회 방문을 통한 인터뷰와 수집자료 등을 기반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자료 분석의 경우, UNWTO,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포털), 한국관광공사(한국관광통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제주관광통계자료) 등에서 발간되는 통계자료 및 사이트를 참고하여 요소별로 데이터를 추출한 후 Excel2007을 활용해 재분석하였다.

### III. 국내 생태관광 동향 분석

#### 1. 내국인 생태관광 동향

최근 생활양식의 변화와 삶의 패턴변화에 따라 기존의 등산이나 대중 관광과는 달리 자연·생태자원을 최대한 보전하면서도 교육과 체험, 관광을 통합한 생태관광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조사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태관광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생태관광 수요자가 3,764,300명, 연간 188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생태관광 참여시 선호하는 동반자 유형으로 가족이 70.2%를 차지하고 향후 생태관광에 대한 긍정적인 수요가 70~80%<sup>3)</sup>에 달하고 있어 생태관광 참여율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sup>4)</sup>.

자연·생태자원을 중심으로 관광이 이루어지는 제주도의 관광객 추이를 보면, 생태관광에 대한 수요증가의 가능성을 명확히 예측할 수 있으며(그림 2 참조), 대표적 생태관광지인 순천만의 관광객 추이에서도 이를 말해주고 있다(그림 3 참조).

이러한 흐름과 대조적으로 생태관광을 표방하는 일반 관광상품이 우후죽순 나타나고 있어 생태관광의 명확한 범위설정과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김성일, 2010).

순천만, 울진 소나무숲길 등과 같이 국가적으로도 자원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지역에서도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개발·진행되고, 관광객 급증에 따른 운영·관리의 어려움, 관광객 만족도 및 윤리 의식 저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접근성 및 동선, 세부 공간 및 이용프로그램, 자연경관 및 동식물상경관, 정보제공 및 전달 등에 대해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갯벌, 소동물과 조류 출현 등 자연경관 및 동식물상경관과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었으나, 세부공간 및 이용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동근과 김보미, 2010; 오남현, 2008). 수요자(관광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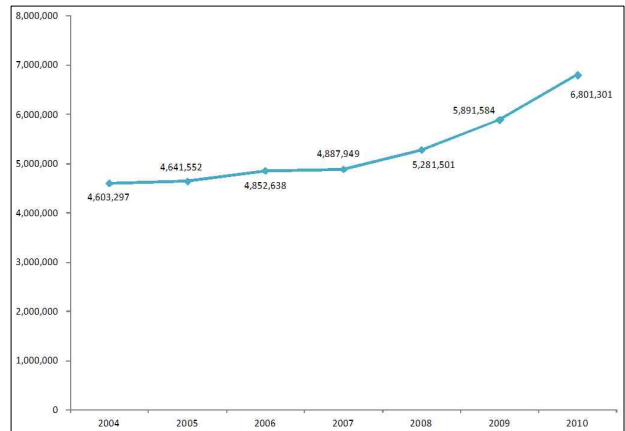


그림 2. 제주도의 연도별 내국인 관광객 추이

법례: —●— 내국인 관광객 수(명)

자료: 제주생태관광협회 통계자료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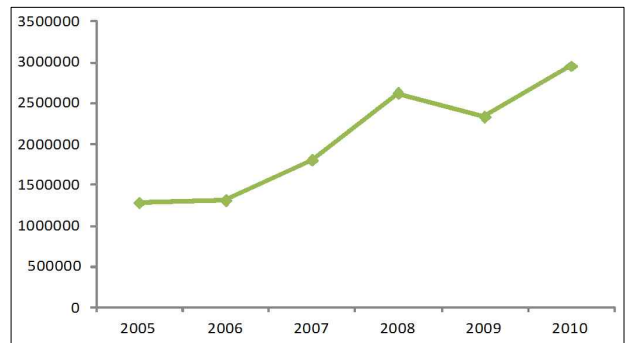


그림 3.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연도별 관광객 추이

법례: —●— 관광객 수(명)

자료: 순천시 통계자료 활용

입장에서 일정 수준의 품질을 보장해줄 수 있는 생태관광 상품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2. 외국인의 방한관광 동향 분석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발간한 ‘2012 관광 주요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관광객 추이가 2007~2008년의 경제 공황,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주요 정치적 변화, 일본의 자연재앙 등으로 잠시 주춤하다 다시 회복하여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UNWTO, 2012). 전 세계관광의 증가 추이와 함께 아태지역도 1990년에서부터 2011년에 이르기까지 연간평균성장률이 5.9%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이어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그림 4 참조).

아·태지역 내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광객 시장점유율은 53.4%를 차지하며, 중국과 일본, 한국의 연간 변화율과 시장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총 관광객 수는 중국이 가장 많으며, 한국의 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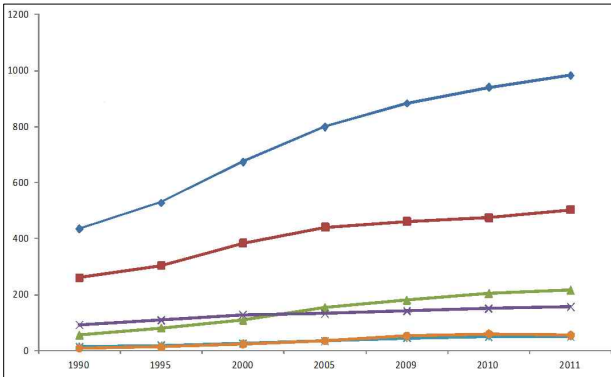


그림 4. 세계와 비교하여 아·태지역에 대한 관광객의 추이  
 범례: — 전세계 — 유럽 — 아태 — 아메리카 — 아프리카 — 중동  
 자료: UNWTO 관광 주요쟁점 2012 통계자료 활용

표 1. 아·태지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 관광객의 추이

구분	국제 관광객(단위: 천명)			변화율(%)		시장 점유율(%)
	2009	2010	2011	10/09	11/10	
아·태지역	181,127	204,439	216,996	12.9	6.1	100.0
동북아시아	98,017	111,508	115,779	13.8	3.8	53.4
중국	50,875	55,664	57,581	9.4	3.4	26.5
일본	6,790	8,611	6,219	26.8	-27.8	2.9
한국	7,818	8,798	9,795	12.5	11.3	4.5

변화폭이 가장 크고, 시장점유율은 중국, 한국, 일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7월 한 달 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처음으로 100만 명이 되었으며, 그 중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 한 달간 32만 명, 일본 관광객 약 30만 명으로 전체 6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국내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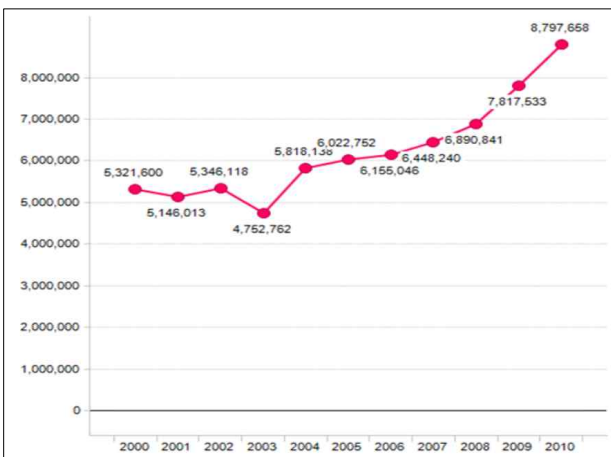


그림 5.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연도별 추이  
 범례: — Sum(외래관광객 수)  
 자료: <http://culturestat.mcst.go.kr/mcst/resource/static/interest/interest02.html>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에서 2004년 급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5 참조).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2)’에 따르면, 관광형태가 쇼핑, 음식/미식탐방, 자연풍경 감상 등 한정되어 있어 생태관광 등 관광상품의 다양한 발굴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의 방한관광 시 생태관광과 유사한 형태인 농촌관광 참여에 따른 만족도 조사연구에 따르면, 농촌관광을 목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찾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체험관광이 그 중 약 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우리나라 농촌관광 마을에 대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품질이 선진국과 비교해 40~70% 정도라 평가하고 있어(농촌경제연구원, 2012),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노력과 지원이 시급히 필요함을 살펴볼 수 있다.

#### IV. 국내·외 생태관광 인증제도 동향 분석

##### 1. 국외 인증제도 동향<sup>5)</sup>

국의 인증제도는 크게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국가 간 혹은 국제기구차원에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인증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생태관광 상품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면서 생태관광 산업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를 꾀하는 나라로는 호주와 코스타리카, 일본, 뉴질랜드, 프랑스 및 스페인 등이 있다. 그 중 호주는 세계 최초의 생태관광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이다. 코스타리카는 7개 기관(관광부, 환경에너지부, 국가생물다양성기구, IUCN, 여행사협회, 남미비즈니스스쿨, 대학협의회)으로 구성된 국가인증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으며, 코스타리카 관광협회(Costa Rica Tourist Institute, IST)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인 호주와 코스타리카의 생태관광 인증제도의 주요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국가 간 이동이 이루어지는 관광의 특수성과 환경영향의 월경성, 생태자원 보전 및 관리의 공유와 공동책임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생태관광 인증은 개별 국가차원보다 국가 간 혹은 국제기구(기관) 차원에서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로 주요 대상으로 유럽의 보호지역 및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인증되는 PAN Parks, The European Charter가 있으며, 국제적으로 유네스코 지질공원 또한 확대되고 있다. 기타 일반적인 생태관광 인증제도로는 Green Globe21, GPST의 GSTC가 대표사례이며, 이들 사례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2. 개별 국가차원의 인증제도

구분	호주 Eco Certification Program (NEAP) <sup>1)</sup>	The Certification in Sustainable Tourism Program (CST Costa Rica) <sup>2)</sup>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관광협회 인증(세계최초의 생태관광 인증)</li> <li>· 생태관광 원칙을 규정한 “NEAP 인증평가기준” 준수여부에 따라 자연관광, 생태관광, 우수생태관광 유형별로 등급화하여 평가</li> <li>· 숙박시설, 관광상품, 관광지(관광매력물) 대상으로 인증</li> <li>· 유효기간: 3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인증위원회 인증</li> <li>· 외국인 관광객의 항공요금 중 \$15를 문화부 예산으로 수용하여 인증 비용, 홍보 등에 활용</li> <li>· 코스타리카 생태관광가이드제도를 국가에서 무료로 운영하여, 연간 60~70명을 고용</li> <li>· 관광부문 모든 업체(여행사, 호텔) 대상으로 인증</li> <li>· 유효기간: 2년</li> </ul>

자료: <sup>1)</sup> 이원희(2009), Ecotourism Australia(2000) Nature and Ecotourism Certification Program second edition, <http://www.ecotourism.org.au/>  
<sup>2)</sup> <http://www.anywherecosatarica.com/cst>

표 3. 국가 간 국제기구(기관) 차원의 인증제도

구분	PAN Parks Verification <sup>1)</sup>	유네스코지질공원 (Geopark) 인증 <sup>2)</sup>	The European Charter (EUROPARC Federation) <sup>3)</sup>	Green Globe 21 International Ecotourism Standard(IES) <sup>4)</sup>	Global Sustainable Tourism Criteria <sup>5)</sup>
주요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생의 보호지역 관리 개선이 주요한 목적</li> <li>· 인증의 지리적 범위: 유럽의 보호지역 중심</li> <li>· 인증기관: PPF(PAN Parks Foundation)</li> <li>· 인증기관에 보전관리자를 두어 전문가와 인증 심사 과정을 통제하고 총괄</li> <li>· 평가그룹이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li> <li>· 편당 직접 지원/네트워크 내 전문가 지원 및 교환</li> <li>· 유효기간: 5년</li> <li>· 5개 원칙에 기반하여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질공원 경계설정 유형은 크게 지자체 관할 영역권, 기본보호구역 중복형, 도시지역형으로 구분</li> <li>· 인증기관: 유네스코</li> <li>· 지질유산의 경관지역을 대상으로 인증</li> <li>· 유네스코 사무국이 지질공원 담당자를 선임하고, GGN 내 조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에서 심의(인증업무)와 자문 수행</li> <li>· 관리 및 운영 상태를 매 2년마다 중간점검하고, 4년마다 재평가</li> <li>· 유효기간: 5년</li> <li>· 6개 항목에 대해 신청지역에 대한 자체평가 후 인증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을 대상으로 인증</li> <li>· 인증기관: EUROPARC federation</li> <li>· 인증비용에 인증 등록비(필수), 인증 심사비(필수), 중간평가 수행비(선택), 갱신용 재평가비(5년 단위)의 Networking fee(협력비)를 따로 받음(500유로/년)</li> <li>· 유효기간: 5년</li> <li>· 10개 항목에 대해 지원자가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박시설, 여행상품, 매력물 대상으로 인증</li> <li>· 인증기관: 세계여행관광위원회(WTT)</li> <li>· NEAP에 기반하여 국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li> <li>· 매년 평가를 통해 새로운 인증을 받아야 함</li> <li>· 유효기간: 1년</li> <li>· 11개 생태관광 원칙별 지표를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년 27개 기관의 연합체로 구성된 파트너쉽에서 함께 평가기준 개발</li> <li>· 인증기관: GSTC Partnership</li> <li>· 전세계의 자연문화자원을 대상으로 인증</li> <li>· 효율적 지속가능한 관리 입증,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경제적 이익 최대화, 문화유산에 대한 이익 최대화, 환경에 대한 이익 최소화 4개 항목별 기준 설정</li> <li>· ISEAL 코드에 따라 개발된 자발적 표준을 준수</li> </ul>

자료: <sup>1)</sup> Bart Van Engeldrop Gastelaars(2002) PAN Parks Verification Under Construction, PAN Parks(2008) PAN Parks Verification Manual Principles and Criteria(2008), <http://www.panparks.org/>  
<sup>2)</sup> 이수재 등(2009) 유네스코 지질공원의 특성과 시사점 연구, 이수재(2010a) 제주도 지질공원 주민설명회 자료, 이수재(2010b) 지질공원 제도 도입관계 기관 워크숍 자료 <http://www.globalgeopark.org/publish/portall/tab59>, <http://www.unesco.org/science/earth/doc/geopark/list.pdf>  
<sup>3)</sup> EUROPARC federation(2007) Manual, European Charter for sustainable tourism in protected areas  
<sup>4)</sup> EC3 Global Pty Ltd. Green Globe Standards & Sectors, 문화체육관광부(2010) 생태관광 인증제도 추진방안 수립 방안 수립, <http://www.greenhotelcertification.com/index.html>  
<sup>5)</sup> GPST(2010) The Partnership for Global Sustainable Tourism Criteria, <http://www.sustainabletourismcriteria.org/>

## 2. 한·중·일 인증제도 동향

한·중·일 인증제도 기반의 국제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과 중국, 일본의 인증제도를 비교해보았다. 그중 일본은 생태관광 인증제도가 세 나라 중 가장 먼저 도입된 나라로, 2008년 생태관광(에코투어리즘) 추진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는 등 성공적으로 생태관광을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추진법에서는 지역협의체에 기반 한 생태관광 지자체를 인증<sup>6)</sup>하고 있으며 홍보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 대표적인 인증시스템으로는 생태관광 상품의 질 관리를 위해 생태관광협회가 인

증하는 ‘굿·에코투어’가 있다. 기타 사업자, 단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한 사업(프로그램)에 대해서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시상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모든 기업에 대한 ISO 14001 환경관리 인증 시스템이 있어 관광업에 대한 환경 표준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관광지의 지속가능한 관광 인증 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각 부처의 협의하에 ‘관광구역 질적등급의 확정 및 평정 표준’을 발표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02년 10월 국가환경보호국과 Green Globe21 협의를 계기로 국제적 생태관광 인증의 하나인 Green Globe21을 도입하여 정부차원에서 추진을

표 4. 한·중·일 인증제도의 비교

구분	한국 생태관광 지정제 <sup>1)</sup>	일본 에코투어 인증 <sup>2)</sup>	중국 관광등급품질 등급표준 <sup>3)</sup>
제도도입 배경	· 생태탐방객에게 공신력있는 관광상품 제공과 자연·생태자원의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목적	· 1998년 3월 일본생태관광협회를 설립 다음해 에코투어 인증제도 연구회를 개최함. 2005년 '굿·에코 투어' 2006년부터 시행	· 정부와 각 부처의 중시하에 '관광구역 질적등급의 확정 및 평정 표준'을 발표
인증/지정 기관	· 환경부	· NPO법인 일본 생태관광협회	· 관광국
인증/지정 조직	· (가칭)생태관광협회 (국가+민간협회)	- (민간협회)	· 관광품질등급위원회 (국가)
인증/지정 대상	· 보호가치가 있는 대상지역 · 창의적이고 다양한 콘텐츠가 포함된 프로그램	· 생태관광 사업자(업체): 여행사, 가이드, 단체	· 모든 유형의 관광지(자연경관, 인문경관)
인증/지정 지표 및 기준	· 5개 원칙(보전가치의 유지 및 향상, 생태적 설계원칙의 고려, 환경과 문화의 이해 공유와 의식 확대, 지역사회 활성화에의 기여, 생태관광 관리의 지속가능성)에 따라 6개 항목 17개 지표(대상지역 지정), 7개 항목 18개 지표(프로그램 지정)로 구성	· 20개 체크리스트형 기준으로 구성: 투어 프로그램의 재미, 질, 안보, 자원보호 활동, 인원제한, 지역기여활동, 지역주민 참여 등	· 17개 평가항목으로 구성: 외부교통, 내부관광노선, 관광시설, 방향 지시판, 경물 소개판, 홍보자료, 관광가이드, 서비스 품질, 안전보장, 환경위생, 화장실, 우편서비스, 쇼핑, 음식업과 식품, 관광질서, 경물보호, 종합적 인상
유효기간	-	2년	1년
소요비용	-	· 투어 당 3,150엔	-
인증/지정 사례	-	· 한노시 지역문화체험 등 약 30개 프로그램 인증	· 5A급(최고등급) 관광지 133개 인증
종합적 고찰	· 보호가치가 있는 자연·생태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과 프로그램으로 인증 대상 구분 · 중앙정부(환경부)와 법정 민간협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 · 지정은 등급으로 구분되며, 재평가(모니터링)를 실시하여 지속적 품질 검증	· 양질의 생태관광 상품을 협회가 추천하는 형태의 인증제 · 20개 평가기준의 체크리스트를 통과하는 상품에 대한 인증으로, 신청서로 심사를 시행하되 별도 현장조사는 시행하지 않음	· 중국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속가능 관광 관련 인증제도 · 평가 후 5등급으로 나누어 인증되며, 매년 재평가 실시

자료: <sup>1)</sup>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2) 생태관광인증적용기술개발 1차년도 보고서

<sup>2)</sup> <http://www.ecotourism.gr.jp/get/GoodEcotour.htm>

<sup>3)</sup> <http://wenku.baidu.com/view/7f65c6313968011ca300915d.html>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생태관광 인증제도는 현재 환경부에서 2013년 본격적인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생태관광 지정제'를 들 수 있다. 인증의 대상은 생태관광 대상지와 프로그램으로 나뉘며 지자체와 민간기업, NGO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최희선과 김현애, 2012). 세 국가 인증제도를 세부 항목별로 비교 분석해 보면 표 4와 같다. 중국은 국가와 자원중심의 인증제도가 일본은 민간협회와 프로그램(상품)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 양국가의 두 시스템을 결합하는 차원으로 발전되고 있다.

## V. 한·중·일 국제협력 방안

### 1. 아·태지역 지속가능관광 네트워크 추진방안

국제연합(UN)은 2002년을 '세계 생태관광의 해(IYE)'로 지정하여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5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행사와 각 대륙별로 18차례의 지역회의가 열린 바 있다. 2002년 UN 지속가능발전

회의의 결과에 따라 UNEP는 "지속가능관광 분과"를 설치하였으며(2006년), 2011년 1월 코스타리카에서 제1차 UNEP 지속가능관광 국제 파트너십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총회에서 우리나라(환경부)는 운영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되었으며, 제2차 총회를 제안 받고 2012년 3월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2012년 3월 서울에서 개최한 「UNEP 지속가능관광 국제파트너십(GPST) 및 제2차 연례회의」에서는 아·태지역 지속가능관광 네트워크 구축이 제안되었다. 이에 환경부를 주축으로 UNEP 사무국이 협력하여 지속가능관광 아·태지역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오는 11월 태국 방콕에서 사전회의에 대한 개최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sup>7)</sup>. 예상 참가국 및 기구는 호주, 중국 등 15개국 및 ASEAN, ADB, KOICA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태지역 지속가능관광 네트워크의 설립은 지속가능관광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접근성 제고는 물론 지속가능관광 및 생태관광 정책 도입, 이행, 지속가능관광의 성공적 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 벤치마킹, 지속가능관광 지원 프로젝트 개발을 주요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아·태지역 생태관광 발전을 위한 허브기구이자 협의기구로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네

구분	단기	중기	장기
참여국가 및 기구	◦ 국가: 15개국 ◦ 기구: 3개	◦ 국가: 17개국 ◦ 기구: 5개	◦ 국가: 20개국 ◦ 기구: 10개
중점 기능	협의 기능	협의 및 자문 기능	실행 기능
사무국 운영	GPST 사무국 활용	아·태 지역 사무국 개설(한국)	국가별 네트워크 사무국 개설(한, 중, 일)
재원확보	Business Plan (Fundraising방안 등) 수립	기금마련	기금활용(프로젝트 수행 등) 및 순환시스템 확보
회의 진행/운영	연차 회의	분기별 회의	상시회의 (on/off line 활용)

그림 6. 아·태 지속가능관광 네트워크 단계별 추진 및 강화 전략(안)

표 5. 아·태 지속가능관광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생태관광 협력방안

구분	전략의 내용	세부내용 및 사례(예)
① 자원 관리 차원	· 동북아/아시아태평양 생태네트워크 보전을 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	· 동북아/아시아 태평양 생태네트워크 보전 및 복원의 실질적 수단으로 생태관광을 활용함으로써 범국가적 차원의 자원관리 공조체계 확보 · 이를 위해 공동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 예: 동북아시아에 분포하고 있는 두루미 서식처를 중심으로 서식처 보전활동이 고려된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개발과 공동 운영
② 기술 교류 차원	· 국가간, 지역간 성공사례 지역의 주민, 전문가의 인적교류	· 각 국가의 대표적인 성과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인적교류를 함으로써 상호간의 노하우 교류 · 예: 2011년 8월 제주도와 규슈관광추진기구와 '규슈올레' 조성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하고, 규슈올레 코스개발 컨설팅제공 및 이름사용허가/베트남 등에서 일본 한노시(에코투어리즘 최초의 인정도시) 방문
③ 관광객 관리 차원	· 생태관광 여행객 행동강령 제정 및 책자화(한, 중, 일어)	· 한중일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각 국가별 유의사항이 포함된 생태관광객 행동강령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 예: 코스타리카 등 많은 국가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한 행동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배포
④ 정보 공유 차원	· 각 국가의 인증된 생태관광지의 홍보 및 소개	· 각 국가 공식 Site 및 GPST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인증된 생태관광지를 홍보하고 소개/홍보책자 발간 & 공개(한/중/일/영어) · 예: 한국과 일본의 생태관광 관련 웹사이트에서는 인증되었거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 홍보 및 소개
⑤ 역량 강화 차원	· 국제해설가 교육프로그램 운영	·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대상으로 한 생태해설가 양성 및 문화공유의 장 마련 · 예: 제주도의 1100고지 습지 등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통역을 통해 생태해설이 이루어지고 있어, 외국어에 능통한 생태해설 전문가 양성 필요성 제기/일본의 생태관광지 영어 해설가능력 확대 중

트위크의 활성화를 통한 생태관광 발전 도모가 예상되며, 이를 위한 단계별 전략은 그림 6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 2. 한·중·일 국제협력방안: 생태관광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관광과 달리 생태관광은 자국민이 주요 수요자가 되고 있으나, 인터넷의 발달과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생태관광의 질을 유지하는 것은 각 국가의 생태·문화자원의 보전과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자국의 관광객은 물론, 문화가 다른 외

국인도 함께 고려된 생태관광지의 운영·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제시한 아·태 지역 지속가능관광 네트워크에 기반한 한·중·일 생태관광 협력방안을 ① 자원관리, ② 기술교류, ③ 자원보전을 위한 관광객 관리 ④ 정보공유, ⑤ 역량강화 차원으로 구분하여 예시와 함께 제시해보았다(표 5 참조).

단기적으로는 각 국가 간 인증제도의 정보 및 시범사업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생태관광 기반의 한·중·일 협력방안의 하나로 인증제도의 공동추진/GPST 인증의 한중일 도입을 통해 자원보전과 경제, 사회문화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한·중·일 생태관광 인증제도는 생태관광의 본래적 의미를 회복하고, 각 국가의 자연·생태자원 보전과 지



그림 7. 한·중·일 생태관광 인증제도 단계별 도입 및 활성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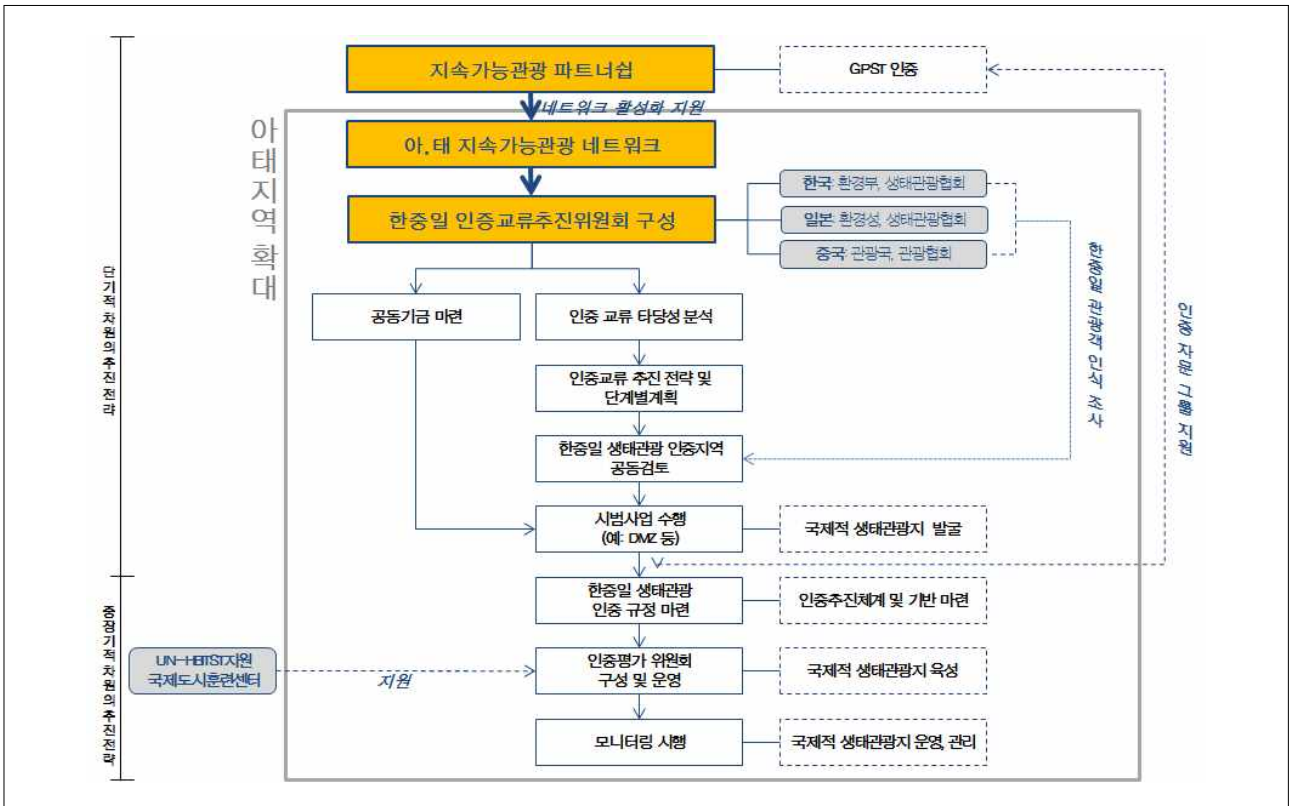


그림 8. 아·태 지속가능관광 네트워크 기반의 인증제도 발전 세부 실행전략(안)

역의 자원관리 역량의 강화, 국가 및 지역 경제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국의 생태관광 질 향상을 독려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외국인에게 쉽게 알려지지 않은 국가 고유의 관광상품 다양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국가 간 자연, 문화자원 및 기술교류를 통해 고유 문화를 인식하고 확대,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중·일 생태관광 인증제도의 단계별 도입 및 활성화 전략(안)을 제시하면 그림 7과 같다.

아·태 지속가능관광 네트워크 기반의 인증제도 발전 세부 실행전략을 한·중·일 인증추진위원회 활동단계와 한·중·일 인증평가위원회 활동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그림 8과 같다. 장기적으로 한·중·일을 넘어 아·태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생태관광지의 국가 간 공유 및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VI. 결론 및 제언

국내·외적으로 관광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생태관광의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생태관광 자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과 대조적으로 생태관광 지에서의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오는 등 생태관광의 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일정한 수준의 생태관광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고려되는 인증제도는 생태관광객의 57.1%가 인증상품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함을 고려할 때(최희선과 김현애, 2012), 유효한 제도적 수단임이 시사된다. 국의 개별국가차원과 국가 간,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생태관광 인증제도의 경우 표 6과 같이 장·단점이 고려되며, 이들 특성이 고려된 한중일 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자원과 관광객 관리의 국제적 동조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6. 국외 생태관광 인증제도의 장단점

구분	개별 국가차원	국가간, 국제기구 차원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와 운영 용이(평가, 모니터링 포함)</li> <li>· 인증대상 구획화 가능</li> <li>· 국가차원에서의 다양한 지원이 가능</li> <li>· 국가의 신생 정책 반영이 용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인 인증대상지 발굴 용이</li> <li>· 국가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가 용이</li> <li>· 거시적 차원에서의 국제협력에 기여</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에게 공개가 어려움</li> <li>· 부처간 의견 제기에 따른 조율의 어려움</li> <li>· 국제적 협력 및 교류의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간 조율의 어려움</li> <li>· 인증비용의 형평성 확보의 어려움</li> <li>· 상시 모니터링의 한계와 어려움(인증 유효기간이 4~5년으로 비교적 김)</li> </ul>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생태관광 동향을 통해 생태관광 인증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도출하였으며, 국외의 국가별/국가간 생태관광 인증제도 분석을 통해 한·중·일 세 국가 차원에서의 인증교류 필요성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UN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생태관광 국제협력 동향고찰을 통해 인증제도를 기반으로 한 한·중·일 협력방안 및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각 국가의 특성과 제도적 여건을 고려한 인증제도의 교류와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공동인증의 도입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차원에서도 기본적으로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여건에 초점을 두어 국가적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관광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차원에서의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전략 및 로드맵의 수립이 필요하며, 생태관광 관련 법률의 제,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생태관광 추진법을 제정하여(2008년) 정부 차원에서의 인정과 지원을 통해 지역의 부흥을 꾀하고 있다. 둘째, 생태관광의 자원, 관광객, 운영 등 현황에 관해 통계자료를 확충 및 확대함으로써 예측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연계하여 생태관광지별 수용력 산정을 통해 관광객 관리 및 운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태관광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자생력을 키우고 외국어가 가능한 전문 해설가를 양성하여 국제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 한·중·일 3국은 생태관광을 대하는 태도와 목적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sup>9)</sup>, 생태자원 측면에서는 독특한 몇 개의 자원을 제외하면 상당히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생태관광을 통해서 인지되는 자연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 교감을 느끼는 정서적 차이와 문화적 차이는 충분히 서로 매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정치적 이해갈등이나 대립이 민간차원에서 해소되고 확대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 1.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의 생태관광 정책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주 2.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지정제도'라는 용어로 제도도입을 모색하고 있으나, 국외의 많은 나라들은 인증제도(Certification)로 추진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두 제도의 목적이 거의 동일함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주로 인증제도라는 용어로 서술한다.

주 3. 70%는 국민의 경우 80%는 지자체 담당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주 4. 생태관광 전망에 대해 국민의 약 70%는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참가 의향 기준 수요 예측의 경우 년 간 3,834,946명으로 추정되며, 반복 방문을 고려할 경우 이보다 증가할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주 5. 국외 인증제도의 세부내용은 최희선과 김현애(2012)의 논문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 본 고에서는 간략하게 서술한다.  
 주 6. 일본의 생태관광 추진법에서는 생태관광지역에 대한 국가 인증제도 추진을 언급하고 있음. 세부적으로는 생태관광 추진구상안에 대한 인정(approval)과정을 통해서 인증이 이루어지며, 시장(지자체의 장)은 보호가치가 있는 특정 자연관광 자원에 대해서 지정(designation)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주 7. 회의에서는 잠재적으로 1) 아·태지역 국가의 지속가능관광 정책·잠재성·전망 관련 연구결과, 2)아·태지역 네트워크 구성요소 및 회원국(기관), 3)제정 등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등의 안건이 논의될 계획이다.  
 주 8. 최근의 생태관광 동향을 보면, 중국은 거대한 원시자연을 대상으로 한 생태관광을 통해 자연의 존엄성을, 일본은 체험과 문화, 교육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과 관계성을, 한국의 생태관광은 자연을 통한 인간의 정서 회복과 치유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인용문헌

1. 김성일(2010) 무늬만 생태관광. 한국경제 기고글.
2. 문화체육관광부(2010) 생태관광 인증제도 추진방안 수립.
3.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국가별 결과보고서.
4. 오남현(2008) 울진금강송 생태숲의 이용자 행태분석과 개선방안.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2(3): 249-259.
5. 이동근, 김보미(2010)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관리를 위한 중요도·만족도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37(6): 39-47.
6. 이수재, 사공희, 최준규, 이명진(2009) 유네스코 지질공원의 특성과 시사점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7. 이수재(2010a) 제주도 지질공원 주민설명회 자료.
8. 이수재(2010b) 지질공원 제도 도입관계기관 워크숍 자료.
9. 이원희(2009) 친환경관광 인증제도 도입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0. 최희선, 김현애(2012) 국내·외 생태관광 인증/지정제도 동향 및 국내 제도도입 방안.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지 15(1): 73-87.
11.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2) 생태관광인증적용기술개발 1차년도 보고서.
12. Bart van Engeldrop Gastelaars(2002) PAN Parks Verification Under Construction.
13. EC3 Global Pty Ltd. Green Globe Standards & Sectors.
14. Ecotourism Australia(2000) Nature and Ecotourism Certification Program Second Edition.
15. EUROPARC Federation(2007) Manual, European Charter for Sustainable Tourism in Protected Areas.
16. GPST(2010) The Partnership for Global Sustainable Tourism Criteria.
17. PAN Parks(2008) PAN Parks Verification Manual Principles and Criteria.

18. UNWTO. 2012. Tourism Highlights.
19. <http://culturestat.mcst.go.kr/mcst/resource/static/interest/interest02.html>
20. <http://www.anywherestarica.com/cst>
21. <http://www.ecotourism.gr.jp/get/GoodEcotour.htm>
22. <http://www.ecotourism.org.au/>
23. <http://www.greenhotelcertification.com/index.html>
24. <http://www.panparks.org/>
25. <http://www.sustainabletourismcriteria.org/>
26. <http://www.unesco.org/science/earth/doc/geopark/list.pdf>

---

원 고 접 수 일: 2012년 8월 28일  
심 사 일: 2012년 10월 24일(1차)  
계 재 확 정 일: 2012년 11월 8일  
3 인 익 명 심 사 필